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배양 효과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

이혜선 국립암센터 암지식정보센터 박사후연구원

조혜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

조재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n Disability*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on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Disability

Hye-Sun Lee**

(Postdoctoral Researcher, National Cancer Control Institute, National Cancer Center)

Hye-Jin Cho***

(Ph.D. Candidat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Jaehee Cho****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The stigma on disability can serve as evidence that society is not functioning authentically, as it means a failure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mong its members. Stigma is created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members and could bring about devaluation as social members within social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devaluation is initiated by the individual who marks and shares stigma cues, while the person being marked becomes the devaluation target. Media representation could influence the devaluation of disabled people as marked individuals when it conveys stigma cues about disability. Conversely, media could also convey challenge cues, which present appropriate ways to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 earlier version of this manuscript was presented at the 2022 Regular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We acknowledge the insightful suggestions of the discussants and reviewers and express our gratitude to Jeonggyun Ham for granting permission to use his videos as experimental stimuli(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한국언론학회 2022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세션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발진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셨던 토론자 선생님들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실험 자극 사용을 허락해주신 함정균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NRF-2021S1A5A2A03071728).

** lhs@ncc.re.kr, first author

*** cho0811@sogang.ac.kr

**** jcho76@sogang.ac.kr, corresponding author

solve problems with the support of people aiding disabled individuals. It indicates a separation between the media representation of those with long-term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and the media representation of the negative aspects of their social interactions. Simply put, the media could choose and convey stigma or challenge cues about disability when it represents disability. This study applies cultivation theory to examine the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for disability.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tigma or challenge cues for disability on perceptions and beliefs about disabled people. Media representation can shape perceptions of the real world when individuals rely on media messages as cues or as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reality. Previous studies suggest this as the primary cultivation effect and also describe the secondary cultivation effec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reality and beliefs about a represented object. However, there is a research gap about the primary and secondary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n disability.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primary and secondary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s of disability, with a specific focus on stigma and challenge cues. Employing a 2 (stigma: stigma vs. challenge) by 2 (script: present vs. absent) between-groups factorial design, including a control group,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exposed to stigma cues exhibited more negative perceptions of disabled individuals and the mobility environments they navigate compared to those exposed to challenge cu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negative perceptions of disabled peopl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daptation to the social environment) increased beliefs about disabled people (hostile and benevolent discrimination). Perception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however, increased hostile discrimination while decreasing benevolent discrimination. Moreover,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disabled people on hostile discrimination were significant only in the group exposed to stigma cues about disabilit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the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n disability. Further, it expands previous studies by confirm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cultivation effects of media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Keywords: disability, stigma, cultivation theory, hostile discrimination, benevolent discrimination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효과를 낙인·반낙인 단서와 배양 이론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특히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서 기능적 손상을 경험하는 개인의 재현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의 재현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주요 논의를 종합하여,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인 1,080명 대상으로 2(단서: 낙인 vs. 반낙인) x 2(자막-스크립트: 있음 vs. 없음) 집단 간 요인설계를 적용하였고,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총 5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주요 변인을 조작한 실험 자극을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및 기설 분석 결과,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과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더 부정적으

로 인식하였다.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장애인의 이동환경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은 장애인을 향한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 장애, 낙인, 배양 이론, 적대적 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

1. 서론

장애 혹은 장애를 지닌 사람을 향한 낙인은 그 사회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장애를 향한 낙인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에 따른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 다시 말하면 사회 구성원 간 통합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Reinhardt et al., 2014). 장애인의 의사(意思)를 묻고 존중하기보다 일방적인 시혜를 베풀고 순종을 기대하는 온정적 차별주의도 문제이지만(이정은 등, 2020), 장애인을 보호 혹은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낙인(stigma) 논의로 이어진다. 낙인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며, 타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받은 개인의 고유한 속성에 부여되어 사회적 관계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평가 절하를 초래한다(Goffman, 1963). 해당 논의는 미디어 재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의 관점을 반영한 미디어 재현은 소수자 혹은 약자를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기 쉽고, 언론보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비장애인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단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백선기, 2006).

장애 논의에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에 따른 기능의 제한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 참여의 제한은 구별된다(Reinhardt et al., 2014; Siminski, 2003).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 역시,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재현하는 것과 기능의 제한에 의한 부정적 측면을 재현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낙인 단서는 기능의 제한 그 자체보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낙인 단서 역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에 따른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향한 평가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 낙인 단서에 대항하는 반낙인 단서 논의는 미디어 재현에서 '기능의 제한 재현'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재현'이 구별된다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결국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측면을 부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낙인 단서는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으로(Elliott & Byrd, 1984), 반낙인 단서는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차유리·나은영, 2012; Reinhardt et al., 2014; Smith, 2007).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낙인·반낙인 단서의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을 다각도로 논의해보려 한다. 특히 배양 이론(cultivation theory)에 주목하여,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배양 이론 논의는 단순히 자극-반응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

하기보다 메시지에서 개인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Shrum, 2017). 또한 과거 매스 미디어의 강효과 이론에 초점을 맞추었던 시기에는 미디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단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배양 이론 논의는 각각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단서들의 차별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Potter, 2014). 배양 이론은 최초 거버너(Gerbner, 1969)의 논의 이후 몇 가지 방향으로 확장되었는데, 미디어 메시지의 재현 양상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미디어 세분화, 지식·신념·감정으로 구분되는 효과의 세분화(Potter, 2014), 1차 배양 효과와 2차 배양 효과(Shrum et al., 2011), 그리고 주류화와 공명 등이 논의되었다(Gerbner et al., 1980; Shrum & Bischak, 2001). 이 연구는 각각의 논의를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적용하고,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을 넘어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배양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낙인 단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신나안·정병언, 2021; Goethals et al., 2020). 따라서 장애를 향한 낙인 단서 위주의 재현 양상이 계속된다면, 미디어의 낙인 단서 재현에 따른 배양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미디어 담론에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낙인 단서와 반낙인 단서의 차별적 영향력을 배양이론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를 향한 미디어의 재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이해하고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초석을 놓아보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의 장애 재현과 낙인·반낙인 단서

낙인은 “하나의 온전한 주체이자 평범한 사람에게 불명예나 수치를 줌으로써 심각한 불신을 조성하는 것(Goffman, 1963, p. 3)”을 의미한다. 고프만에 따르면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낮은 신용을 의미하고 평가 절하라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표시(mark)가 존재한다. 이러한 표시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며, 해당 표시가 담긴 의견이나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스미스(Smith, 2007)는 ‘과정으로서의 낙인화’, 즉 구별 가능한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개인을 범주화함에 따라 특정 표시가 나타난 개인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에 주목하였다. 그

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 기능적 관점의 낙인은 상호주의 규범을 위반하는 속성, 집단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향한다. 따라서 낙인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표시(mark), 개인의 통제 가능성, 그리고 집단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형성하는(group labeling)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낙인을 찍는 사람들은 표적이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Jones et al., 1984), 낙인은 개인의 고유한 속성에 부여되므로 대인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평가 절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Smith, 2007).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 단서 역시, 해당 속성을 가진 개인을 평가 절하하도록 만든다(Reinhardt et al., 2014).

장애(disability)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 장벽(barriers)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며(United Nations, 2006), 개인의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impairment)과 구별된다(Siminski, 2003). 장애¹⁾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을 입는 것과 태도 및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로서 참여를 제한받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척수 손상으로 인해 허반신 마비를 경험하는 개인이 자력으로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면 이는 기능의 제한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허반신 마비를 경험하는 개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지 허반신 마비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을 평가 절하하거나, 허반신 마비를 경험하는 개인이 편하게 드나들기 어려운 단 하나의 출입구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구성물인 장애가 된다. 이는 미디어 재현에도 오롯이 적용된다. 미디어에서 신체적·정신적·감각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한 개인을 재현하는 것과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재현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묘사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지 않는 특징을 지닌 희생자로 표현하는 등의 낙인화는 장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Elliott & Byrd, 1984).

하지만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낙인 단서뿐 아니라 반낙인 단서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장애인'으로 통칭하는 것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이미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과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체적·정신적·기능적 손상에 따른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면서도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할 때,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이를 포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하여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능의 제한을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태도 및 환경적 장벽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을 간명하게 언급하고자 불가피하게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했다.

(차유리·나은영, 2012; Smith, 2007). 특히 스미스(2007)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낙인 단서와 그에 도전하는 반낙인 단서의 효과까지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낙인 단서는 개인의 부정적인 속성에 주목하지만, 반낙인 단서는 낙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방법을 제시한다(Smith, 2007). 특히 장애에 관한 반낙인 단서는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가족·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동등한 사회 주체이자 권리를 지닌 존재로 재현한다(최이정, 2009; Higgins, 1992; Scotch & Schriener, 1997). 관련하여, 차유리와 나은영(2012)은 낙인 단서와 반낙인 단서를 TV 프로그램과 신문에 적용하기 위해 유목화하였는데, 낙인 단서는 비판, 절망, 표시, 위협, 책임, 사회적 배제 유형으로 구분되고, 반낙인 단서는 낙관, 가능성, 투지, 사회적 수용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낙인 단서와 반낙인 단서를 포함하는 미디어 메시지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TV 프로그램과 신문에서는 만성 질환 신체장애인을 향한 위협 유형의 낙인 단서와 사회적 수용 유형의 반낙인 단서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Table 1. Types of stigma/challenge cues

유형	범주	내용
낙인 단서	비판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슬픔, 우울함 등 부정적 정서 관련 표현
	절망	장애에 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나 죽음에 관한 표현
	표시	장애인 특유의 외면상 특징, 모습, 행동에 관한 표현
	위협	장애인의 재정적, 신체적 곤경이나 위협에 관한 표현
	책임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이나 잘못으로 지목하는 표현
	사회적 배제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꺼려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표현
반낙인 단서	낙관	장애인의 웃는 모습, 밝은 모습, 희망 관련 표현
	가능성	장애인의 가능한 일상생활(먹기, 뛰기, 친교 등) 관련 표현
	투지	장애인의 어려움 극복이나 치료 성공에 관한 표현
	사회적 수용	장애인을 향한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등의 지지 관련 표현

Note. 차유리와 나은영(2012, 188쪽)의 연구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였음

2) 미디어의 장애 재현에 따른 배양 효과

(1) 1차 효과: 미디어 재현에 의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

① 미디어 재현에 의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의해 전달되는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로, 본 연구에서는 배양 이론

에 주목하였다. 배양 이론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미디어의 재현이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hrum et al., 2011). 특히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단서들은 재현 대상을 향한 지식이나 정보로 작용하여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Reinhardt et al., 2014). 거브너(Gerbner, 1969)는 미디어를 대중의 신념이나 공동체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으나, 후속 논의(Potter, 2014)는 배양 이론을 미디어의 세분화와 배양 효과의 세분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확장하였다. 매스 미디어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던 배양 이론 논의 초창기에는 강효과 이론이 당시의 미디어 효과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화된 미디어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미디어 이용자를 세분화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미디어를 하나의 단위로 보기 어렵다(Potter, 2014). 따라서 배양 이론 논의는 미디어의 세분화, 다시 말하면 미디어에서 특정 대상을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차별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선행연구는 미디어의 재현 양상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 TV 프로그램은 아랍인을 재현할 때 아만적인 모습이나 테러리스트 같은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 대학생들은 미디어의 부정적인 묘사를 알고 있지만 이러한 묘사가 현실적이라고 답변하며 아랍인을 ‘테러리스트’나 ‘아만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였다(Melhem, & Punyanunt-Carter, 2019). 또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한 미디어의 부정적 묘사에 노출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에 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Diefenbach & West, 2007). 최이정(2009)은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을 두 종류의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을 향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하는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장애인을 향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사회 의존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평가하는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은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당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에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과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장애인을 향한 인식 역시 각각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배양 이론에 관한 포터(2014)의 관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향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포터(2014)는 배양 이론을 확장하며 미디어의 재현 양상에 따라 재현 대상과 관련된 인식이 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배양 효과로 인해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모습이 사회 전반에 만연할 것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모습이 타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Melhem, & Punyanunt-Carter, 2019). 장애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이자 사회적 구성물이며, 과정으로서의 낙인화에는 특정 표시가 나타난 개인을 평가 절하하는 반응까지 포함한다(Smith, 2007). 따라서 장애와 관련된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는 미디어에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의 상호작용을 재현하였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절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반영된 낙인 단서란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도적·환경적 장벽에 의한 부정적 측면의 부각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낙인 단서에 의한 부정적 인식이란 과정으로서의 낙인화, 즉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태도적·환경적 장벽에 의한 평가 절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도적·환경적 장벽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의 태도와 장애인의 이동환경에 주목하였다. 먼저 비장애인의 태도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으로 논의되는데(신은경·이한나, 2011; 이정은 외, 2020), 신은경과 이한나(2011)는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태도가 권위적 동정에 기반하여 형성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반면, 김경미와 윤재영(2013)은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환경에는 비장애인의 태도뿐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환경도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공공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려 할 때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것 등이 사회환경으로서의 이동환경에 해당한다. 각각의 연구는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주하는 태도적·환경적 장벽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적·환경적 요소를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에 적용한 연구, 다시 말하면 낙인·반낙인 단서가 태도적·환경적 장벽에 의한 평가 절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자막에 의한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 강화

미디어 재현은 장애인에 관한 표상을 형성하며, 미디어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청각 및 시각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은 더 쉽게 흡수된다(Elliott & Byrd, 1982, 1984). 따라서 장애를 향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묘사는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오기도 하지만(최이정, 2009; Diefenbach & West, 2007),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재현된 반낙인 단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척수 부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영화 속 장면을 실험 자극물로 활용하였을

때, 해당 장면에 노출된 집단은 장애인의 고용 및 생산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Reinhardt et al., 2014). 이러한 논의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낙인·반낙인 단서가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태도적·환경적 장벽에 의한 평가 절하에 차별적 영향력을 불러올 가능성을 예상하게 한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장애 재현이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에 관한 표상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미디어에서 제공한 단서들은 재현 대상을 향한 지식 혹은 정보로 작용하여 사회 전반을 향한 인식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inhardt et al., 2014). 장애와 관련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단서'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낙인·반낙인 단서 외에도 인간의 정보처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막의 효과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했다.

장면으로 재현되는 낙인·반낙인 단서와 달리 자막은 문자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막 혹은 문자 메시지의 효과는 미디어 재현을 통한 심상정보처리나 정보처리를 논의하는 선행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변인으로(김옥태·홍경수, 2012; 이두희·권오영, 1999; 이민영, 2020), 각각의 논의는 장면으로 재현되는 비언어적 정보와 자막을 포함한 언어적 정보들이 함께 제공될 때 미디어 표상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그림이나 영상이 비언어 정보라면 자막은 언어 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문자로 표현된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은 미디어 메시지를 통한 표상 형성이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Clark & Paivio, 1991). 또한, 등장 인물의 말을 구어체 그대로 전달하는 대사적 자막은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내용을 현실에 가깝다고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이민영, 2020). 관련하여, 이민영(2020)은 문화적 소수자가 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자막에 따라 재현 대상을 향한 인상 형성도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김옥태와 홍경수(2012)는 교양 프로그램의 자막이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출연자의 발언 내용을 문자 형태로 작성한 자막은 시청자의 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출연자의 발언 내용을 문자 형태로 작성한 자막이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인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를 강화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으로 전달되는 낙인·반낙인 단서란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긍정적 측면의 부각을 가리킨다. 미디어 재현은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기 때문에(Elliott & Byrd, 1982, 1984), 낙인 단서는 과정으로서의 낙인화, 다시 말하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태도적·환경적 장벽에 의한 평가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동등한 사회 주체이자 권리를

지닌 존재로 재현하는 반낙인 단서는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Reinhardt et al. 2014).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향한 평가 절하는 태도적 장벽과 환경적 장벽이 함께 작용한다. 즉, 장애인을 향한 평가 절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태도에 기반하여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동환경 역시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의 사회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자 장벽에 해당한다(김경미·윤재영, 2013).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는 비장애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측면의 장벽이나 환경 측면의 장벽으로 인한 평가 절하에 각각 영향력을 발휘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디어 재현을 통한 표상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주의 집중을 지원하는 자막은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를 강화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해당 논의를 모두 종합하여,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1차 배양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1. 미디어에서 재현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보다 사회 속의 장애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향한 부정적 인식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1. 자막은 미디어에서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향한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가?

(2) 2차 효과: 미디어 재현 이후 장애인을 향한 신념의 변화

①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이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앞서 배양 이론의 확장을 미디어 세분화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배양 이론은 배양 효과를 세분화하는 측면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관련하여, 포터(2014)는 선행연구를 종합한 뒤 배양 효과를 지식, 신념, 감정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면, 폭력에 관한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폭력이 만연하다는 인식이 증가할 수 있고(지식), 자신이 폭력으로 인해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길 수도 있으며(신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촉발될 수도 있다. 인식(perception)이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이나 실제 세계를 관찰한 결과라면, 신념(beliefs)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의 관찰과 무관한 개인의 믿음을 가리킨다(Smith, 2001). 즉,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에 노출되어 이를 관찰한 결과로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든가 '장애인의 주변 편의시설은 적절하다'고 해석하였다면 이는

인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감각기관을 활용한 관찰과 무관하게 ‘장애인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든가 ‘장애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산다’ 등의 문장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이는 신념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Hawkins & Pingree, 1982)는 미디어의 재현이 사회 전반을 향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1차 배양 효과, 미디어에서 재현된 대상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2차 배양 효과로 구분하였다. 배양 이론 연구는 주로 1차 배양 효과에 주목하지만, 미디어 콘텐츠는 재현 대상을 향한 신념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2차 배양 효과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Shrum et al., 2011). 따라서 1차 배양 효과와 2차 배양 효과는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지니며, 1차 배양 효과가 2차 배양 효과의 선행변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Potter, 1991).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단서들이 미디어 콘텐츠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기 위한 정보로 작용하여,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신념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Hawkins & Pingree, 1982). 즉, 미디어를 통한 재현은 재현된 모습이 사회 전반에 만연할 것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미디어 재현을 통해 변화한 인식은 재현 대상을 향한 추론의 결과인 신념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2차 배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미디어의 재현 양상에 따라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1차 효과), 미디어에서 재현된 단서의 영향을 받은 비장애인의 인식은 재현 대상이었던 장애인을 향한 추론의 결과인 비장애인의 신념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다(2차 효과).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 처리 모형(the online processing model)과 연결되기도 한다. 슈럼(Shrum, 2017)의 논의에 따르면, 이용자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그 결과로 새로운 판단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판단을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신념 역시 미디어 콘텐츠에서 전달하는 특정 메시지나 정보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되거나 갱신될 수 있다.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은 미디어에서 재현된 모습을 자신의 인식이나 신념에 반영하고 조절할 뿐만 아니라 대리적인 학습을 하기도 한다(Zhang & Haller, 2013). 예를 들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어려워하고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삽화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삽화 속 인물을 향하여 ‘불행한 사람이다’, ‘쉽게 좌절할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등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신념을 보였다(김수연, 2009). 미디어를 통해 물질주의 혹은 소비주의를 반영하는 메시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신념으로서의 물질주의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Shrum et al., 2011). 이러한 논의는 낙인·반낙인 단서로 인해 변화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이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게 한다.

② 낙인·반낙인 단서에 의한 주류화와 공명

앞서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배양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1차 효과), 미디어 노출 이후 변화한 인식이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2차 효과)을 각각 논의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낙인 단서 혹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이 서로 다른 세계관을 공유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즉,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비장애인의 신념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한 집단은 기능적 손상을 경험하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에 주로 노출되었고, 다른 집단은 같은 조건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과 신념 간의 관계 역시 달라질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배양 이론을 제시한 거브너(Gerbner, 1969)는 미디어를 대중의 신념이나 공동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통의 상징이나 의미를 지닌 미디어 메시지의 대량 생산은 상징적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이론에 '배양(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0)에 의해 주류화(mainstreaming)와 공명(resonance)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데, 먼저 주류화는 같은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해당 메시지에서 제공한 관점을 공유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주류화는 인종, 국적, 성별, 소득 수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Mustafaj & Van den Bulck, 2021), 사실 이 개념은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된 개인들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Shrum & Bischak, 2001). 다시 말하면, 배양 이론의 주류화는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쌓아온 개인들이 같은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해당 메시지의 관점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같은 세계관을 형성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신문을 읽지 않는 백인과 비백인은 경찰을 향한 신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신문을 자주 읽는 백인과 비백인은 각자의 삶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쌓아왔으리라 예상됨에도 경찰을 비슷한 수준으로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Choi & Lee, 2021).

슈럼과 비샤크는 배양 이론의 주류화가 직접 경험이 적은 사람들, 즉 판단을 위한 근거 혹은 단서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메시지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류화와 달리, 공명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향한 개인의 인식이 미디어로부터 제공된 메시지와 일치할 때 미디어 메시지의 효과도 더 강력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Shrum & Bischak, 2001). 예를 들면,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향하여 이미 폭력 범죄가 만연하다는 인식을 형성한 경우,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범죄 장면은 가상의 표상으로 분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표상을 기억 속에서 다시 호출할 때 그 출처를 혼동하기 쉽다

(Johnson et al., 1993). 따라서 배양 이론의 공명은 “두 배의 복용량(double dose)(Potter, 2014, p. 1019)”, 즉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향한 개인의 인식과 미디어 메시지의 관점이 일치할 때 미디어 메시지의 효과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주류화와 공명 논의를 본 연구에 적용해보면, 장애를 경험하지 못하는 비장애인에게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믿음이나 평가의 근거로 사용된다(Reinhardt et al., 2014). 똑같은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미디어 메시지로부터 제공되는 관점을 공유할 수 있고(Gerbner et al., 1980; Shrum, 2017),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향한 개인의 인식이 미디어 메시지로부터 제공된 표상과 일치할 때 그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Shrum & Bischak, 2001). 이 연구는 2차 배양 효과, 즉 미디어 재현으로 인해 변화한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장애인에게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장애인과 관련된 믿음의 주요 근거가 되며, 낙인 단서 혹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서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여기서 ‘비슷한 관점’이란 주변 환경이나 실제 세계 속 장애인을 향한 인식을 가리키는데,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화한 인식은 각각 낙인 혹은 반낙인 단서를 통해 획득한 표상과 공명하여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종합하여, 본 연구는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이후 변화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이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에 의해서 변화할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 낙인·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이후 변화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은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이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에는 낙인·반낙인 단서에 노출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가?

3.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실험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미디어 재현으로 제공되는 낙인·반낙인 단서와 자막 조건을 구분한 2(단서: 낙인 vs. 반낙인) x 2(자막-스크립트: 있음 vs. 없음) 집단 간 요인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주요 조건과 관련 없는 실험 자극을 제시하는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총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전문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018명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이었으며, 주민등록연인구(통계청, 2022) 기반으로 성별, 연령, 거주 지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기반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소 장애인 접촉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건·의료 계열 및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제외하였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서 장애인 유튜버의 채널을 구독하고 있거나 실험 자극에 등장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 역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단,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n = 5$)는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장애가 아닌 다른 요인의 작용 가능성이 있어 표본에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18명의 연령 평균은 40.72($SD = 10.90$)였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639명, 62.8%)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소득 수준은 월평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24명, 22.0%)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81명, 17.8%)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설계를 통해 구분된 5개의 집단 중 1개의 집단에 무선 할당(random assignment)되었다. 남성 514명과 여성 504명이 각 집단에 99명~104명씩 배치되었으며, 20대 221명(집단별 44명~45명), 30대 229명(집단별 45명~46명), 40대 281명(집단별 55명~57명), 50대 287명(집단별 56명~58명)으로 구성되었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 533명(집단별 105명~107명), 강원권 40명(집단별 8명), 충청권 103명(집단별 20명~22명), 경상권 239명(집단별 47~49명), 전라-제주권 103명(집단별 20명~22명)이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집단별 203명~205명의 실험 참여자가 본 연구의 실험 자극에 노출되었다.

2) 실험 자극의 조작

본 연구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

애인,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향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낙인·반낙인 단서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 인식이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가 자막으로 인해 강화할 가능성, 그리고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이 비장애인의 신념에 영향을 미칠 때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 의한 조절효과 발생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실험 자극 구성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차유리·나은영, 2012)는 TV 프로그램이나 신문에서 위험 유형의 낙인 단서와 사회적 수용 유형의 반낙인 단서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위험 유형은 재정적·신체적 곤경을 가리키고, 사회적 수용 유형은 장애인을 향한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등의 지지에 관한 표현을 가리킨다(차유리·나은영, 2012). 따라서 장애인을 향한 낙인 단서 혹은 반낙인 단서로서, 신체적 곤경을 가리키는 위험 유형과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등의 지지를 얻고 사회환경에 수용되는 모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용 유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을 각각 선정하였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 함정균씨의 유튜브 채널 ‘함박TV’는 2016년 5월 30일 개설되어 2024년 11월 18일 기준 약 1.29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신문사 혹은 방송사는 함정균씨에 관하여 보도할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서 그가 경험하는 신체적 어려움을 먼저 언급하거나(문성호, 2019; KBS, 2018), ‘인간승리’의 모습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상연, 2020). 하지만 함정균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²⁾에는 인터뷰를 위해 목적지로 무리 없이 이동하는 모습이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주체로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동영상³⁾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 경험하는 신체적 곤경이나 위험에 관한 장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채널 ‘함박 TV’의 동영상 가운데 낙인·반낙인 단서를 각각 반영하고 있는 두 개의 장면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자막의 경우 동영상에 실제 사용된 자막을 노출하거나 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구성하였다. 통제집단은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숲길 산책 장면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동영상의 길이는 2분 14초~2분 20초였다.

2) 해당 동영상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pCCG_2X4qlo

3) 해당 동영상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f4JR4LNPY>



Figure 1. Stimuli

Table 2. Script Excerpts from Experimental Stimuli

	Contents
Stigma	오늘은 교유반을 게 있어서 일찍 움직였어요! 여기서 마포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장면)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방법이 없어요! 다음 역까지 휠체어로 가야해요! 아~ 일찍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에 늦겠네요~! 휠체어를 타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속에 늦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Challenge	오늘 인터뷰가 있어요~! ○○○ 유튜브 채널인데요. (해당 유튜브 채널 관련 장면 인서트 삽입)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만드는 곳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음동인데요. 길음동에 "청년공간 길이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곳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3) 실험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할당표집을 위한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뒤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를 위한 설명문을 제시한 뒤 실험 참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을 묻는 사전 측정 문항에 각각 응답하였다. 이후 실험 참여자들은 집단별 조건에 따른 실험 자극에 노출되었고, 실험 자극 노출 이후 조작점검을 위한 3개 문항에 응답하였다. 조작점검 이후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을 묻는 사후 측정 문항, 주요 변인에 영향력을 받

회하리라 예상되는 장애인 접촉 경험에 관한 문항들이 각각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학력과 소득 수준, 장애인 유튜브의 동영상에 관한 개방형 문항을 각각 제시한 뒤 설문조사를 종료하였다. 설문조사 종료 후 제시된 동영상이 연구를 위해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상황과 무관하다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절차 및 주요 내용은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SGUIRB-A-2205-20).

4) 측정 문항

(1)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본 연구는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은 안토낙(Antonak, 1982)이 개발하고 신은경과 이한나(2011)가 국내용으로 변안하여 타당도를 확인한 측정도구(Scale of Attitudes for Disabled Persons and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 Scale-Original; SADP and ATDP-O)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장애인에게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적합하다' 등을 포함하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항은 장애인을 인식 대상으로 바라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가하는 내용에 가까우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단, '장애인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에 몰두한다'는 문항은 연구 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거하였고, 역문항인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는 다른 문항과 연결하여 읽었을 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KMO = .93, p < .001$),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측정 문항이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 '장애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안된다' 등 8개 문항으로, 개인의 특성에 향한 평가 절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을 많이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스스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의 3개 문항으로, 사회환경 적응에 관한 평가 절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요인을 '개인 특성'과 '사회환경 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개인 특성 .90, 사회환경 적응 .76이었다.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에 관한 측정 도구는 김경미와 윤재영(2013)이 개발한 장애인의 환경 척도 가운데 이동과 편의시설에 관한 문항을 적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장애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어 장애인 대상으로 타당도를 확보하였는데, '나의 주변의 편의시설은 적절하다', '나는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의) 주변 편의시설은 적절하다', '(장애인은 본인)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김경미와 윤재영이 제시한 문항 가운데 '우리 집은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으로 개조되어 있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의 인식을 측정하는 본 연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거하였다.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 5개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 이동환경의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90으로 분석에 적합한 문항임을 확인하였다.

(2)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은 선행연구(이정은 등, 2020)에서 장애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측정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정은 등(2020)은 장애인 대상 인터뷰를 통해 비장애인과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장벽을 도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신념에 기초한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각각의 항목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된 6개 문항이 2개 요인으로 구분되고 스크리 도표의 고윳값이 1을 초과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인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에게 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 등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신념과 유사하므로 '적대적 차별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요인은 '장애인의 성공은 특별한 일이다', '장애인은 도움을 주고 보호해야 할 시혜의 대상이다', '장애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산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장애인이 열등하거나 불행하다는 신념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정은 등(2020)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애인이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온정적 차별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개의 요인을 각각 적대적 차별주의와 온정적 차별주의로 구분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적대적 차별주의 .78, 온정적 차별주의 .68로 문항 개수와 인간 대상 연구의 최소 수준 허용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Vaske et al., 2017)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적대적 차별주의에 해당하는 3개 문항(예: 장애인에게 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 등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의 경우,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에서 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예: 장애인은 자주 통명스럽게 군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 요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 절하하는 것과 장애인을 향한 적대적 차별주의가 매우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두 요인을 통합하거나 한 요인을 제거하기보다, 두 요인 간의 관계와 무관한 분석에서는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측정된 적대적 차별주의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장애인 개인 특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온정적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전에 측정된 적대적 차별주의를 함께 투입하여, 사전에 측정된 적대적 차별주의의 영향력을 고려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논의해보고자 했다.

(3) 장애인 접촉 경험

실험 참여자의 장애인 접촉 경험이 주요 변인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장애인 접촉 경험을 별도로 측정하여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유커와 헐리(Yuker & Hurley, 1987)가 개발하고 프루엣 외(Pruett et al., 2008)의 연구에서 수정한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 척도(Contact with Disabled Persons Scale, CDP)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다’를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대상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장애인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는 내적 타당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제거하였고, 나머지 14개 문항은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장애가 있는 친구가 나를 만나기 위해 집에 방문하였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등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경험뿐 아니라 ‘좋아하는 장애인을 만났다’, ‘장애인과 즐겁게 교류하였다’ 같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짜증이 나거나 방해 받았다’, ‘싫어하는 장애인을 만났다’, ‘장애인과 교류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하였다’ 등의 3개 문항은 장애인과의 부정적인 접촉 경험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 접촉 경험 가운데 긍정적인 접촉 경험에 관한 11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부정적 경험에 관한 3개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음에도 또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과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과 부정적인 접촉 경험이라는 두 개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긍정적인 접촉 경험 .94, 부정적인 접촉 경험 .90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와 연구기설 분석에는 SPSS 27.0이 사용되었다.

4. 연구 결과

1) 조작점검

실험 자극이 낙인·반낙인 단서라는 조건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점검 문항으로 ‘시청하신 동영상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가 신체적 곤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와 ‘시청하신 동영상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가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를 각각 제시하였다. 해당 질문은 실험 자극에 낙인 단서와 반낙인 단서가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문항으로, 동영상의 등장인물을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반낙인 단서의 경우,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등의 지지 관련 표현’이 실험 참여자 개인마다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재구성하였다.

조작점검 결과,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n = 408$)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가 신체적 곤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면이 실험 자극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고($m = 5.22$),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m = 1.78$).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n = 407$)은 실험 자극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가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답변했고($m = 4.84$), 신체적 곤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면은 많지 않다고 답변했다($m = 2.94$). 주요 자극과 관련 없는 동영상에 노출된 통제집단($n = 203$)은 휠체어 사용 유튜버의 신체적 곤경이나 어려움($m = 1.01$),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가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m = 1.01$)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조작점검 문항에 관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 통제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였다($p < .001$).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집단 간 동질성 분석 결과, 실험 자극에 노출되기 전 측정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2개 요인(개인 특성, 사회적응),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비장애인의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 모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부정), 학력, 소득 수준 역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Table 3.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1	2	3	4	5	6	7
1.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prior}		1						
2. 사회 구성원 인식 (개인 특성) ^{prior}		.31**	1					
3. 사회 구성원 인식 (사회환경 적응) ^{prior}		.08*	.48**	1				
4. 장애인을 향한 신념 (온정적 차별주의) ^{prior}		.00	.39**	.47**	1			
5. 장애인을 향한 신념 (적대적 차별주의) ^{prior}		.36**	.84**	.44**	.41**	1		
6.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07*	.07*	-.07*	-.16**	.03	1	
7.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12**	.33**	.06*	-.05	.29**	.57**	1
전체 표본 (N = 1,018)	평균 (표준편차)	2.96(1.06)	2.61(1.06)	3.69(1.16)	4.14(1.15)	2.83(1.09)	1.72(0.75)	1.69(0.83)
	최도 / 왜도	0.00/0.43	-0.68/0.25	0.01/-0.31	0.22/-0.47	-0.56/0.15	-0.14/0.89	0.48/1.08
집단 1 (n = 205)	평균 (표준편차)	3.00(1.00)	2.56(1.01)	3.69(1.09)	4.08(1.09)	2.79(1.05)	1.64(0.73)	1.57(0.74)
	집단 2 (n = 203)	3.05(1.16)	2.58(1.04)	3.82(1.10)	4.17(1.14)	2.78(1.07)	1.73(0.78)	1.62(0.81)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집단 3 (n = 204)	2.88(1.04)	2.65(1.09)	3.61(1.24)	4.10(1.20)	2.85(1.14)	1.79(0.80)	1.79(0.89)
	집단 4 (n = 203)	2.93(1.09)	2.66(1.12)	3.67(1.25)	4.20(1.17)	2.84(1.09)	1.68(0.73)	1.72(0.87)
	집단 5 (n = 203)	2.92(0.97)	2.61(1.03)	3.67(1.12)	4.11(1.14)	2.87(1.13)	1.74(0.72)	1.73(0.84)

Note. 집단1 = 낙인-지막 있음, 집단2 = 낙인-지막 없음, 집단3 = 반낙인-지막 있음, 집단4 = 반낙인-지막 없음, 집단5 = 통제 집단(관련 자극에 노출되지 않음). * $p < .05$. ** $p < .0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장애인 접촉 경험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모두 주요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으므로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 요인은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 가운데 적대적 차별주의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 = .84$). 즉, 장애인을 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 요인(예: 장애인은 자주 통명스럽게 군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쉽게 화를 낸다)과 비장애인의 신념 가운데 적대적 차별주의(예: 장애인에게 학업, 직장생활, 경제활동 등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론적으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요인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매우 강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두 요인을 통합하거나 특정 요인을 제거하기보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연구 문제 및 연구가설 분석 과정에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2)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1은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문제 1은 낙인·반낙인 단서와 함께 제시된 자막이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은 개인 특성과 사회환경 적응이라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분석은 주요 변인에 노출된 4개의 실험 집단 대상으로 다변량 공분산분석(two-way MANCOVA)과 공분산분석(two-way ANCOVA)을 각각 적용하였다.

Table 4.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on Negative Percep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Multivariate Covariance Analysis)

	DV	df	F	p	η^2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개인 특성 ^{post}	1	1.40	.238	.00
	사회환경 적응 ^{post}	1	2.39	.123	.00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개인 특성 ^{post}	1	30.99	< .001	.04
	사회환경 적응 ^{post}	1	14.00	< .001	.02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rior}	개인 특성 ^{post}	1	26.95	< .001	.03
	사회환경 적응 ^{post}	1	.48	.489	.00
사회 구성원 인식 (개인 특성) ^{prior}	개인 특성 ^{post}	1	170.42	< .001	.18
	사회환경 적응 ^{post}	1	1.32	.251	.00
사회 구성원 인식 (사회환경 적응) ^{prior}	개인 특성 ^{post}	1	2.79	.095	.00
	사회환경 적응 ^{post}	1	237.20	< .001	.23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prior}	개인 특성 ^{post}	1	15.74	< .001	.02
	사회환경 적응 ^{post}	1	2.70	.101	.00
낙인·반낙인 단서	개인 특성 ^{post}	1	5.39	.021	.01
	사회환경 적응 ^{post}	1	36.46	< .001	.04
자막	개인 특성 ^{post}	1	.89	.347	.00
	사회환경 적응 ^{post}	1	.41	.521	.00
낙인·반낙인 단서 x 자막	개인 특성 ^{post}	1	1.88	.170	.00
	사회환경 적응 ^{post}	1	2.15	.143	.00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자막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낙인·반낙인 단서와 자막 노출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실험 자극 노출 이후 측정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

환경 적응)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을 진행하였다(〈Table 4〉 참고). 이 과정에서 실험 자극 노출 이전에 측정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 장애인의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통제 변인인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부정)을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공변량 동질성 검증(Box's test of equality of covariance)과 르빈(Levene)의 오차 분산 동일성 검정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독립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낙인 단서의 노출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 [$F(1, 806) = 2.58, p < .01, \text{부분 } \eta^2 = .01$]과 사회환경 적응 [$F(1, 806) = 36.79, p < .001, \text{부분 } \eta^2 = .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필라이의 트레이스(Pillai's trace) 검정(Olson, 1976)에서도 낙인·반낙인 단서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자막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낙인·반낙인 단서가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자막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낙인·반낙인 단서와 자막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실험 자극물 노출 이후 측정된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진행하였다(〈Table 5〉 참고). 공분산분석에는 실험 자극 노출 이전에 측정된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통제 변인인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부정)을 각각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공분산분석의 르빈(Levene) 검정 결과 오차 분산이 동일하지 않았으므로 비모수 검정 방법인 순위 공분산분석(ranked ANCOVA)을 실시하였다(최윤정·김동재, 2017; Hwang & Kim, 2012). 분석 결과, 낙인 단서의 노출은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F(1, 809) = 2.58, p < .01, \text{부분 } \eta^2 = .01$], 자막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5. Effects of Stigma and Challenge Cues on Perceptions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anked Covariance Analysis)

	Type III SS	df	F	p	η^2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98040.63	1	2.87	.091	.00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512646.45	1	15.01	< .001	.02
사회 구성원 인식 (개인 특성) ^{prior}	410913.41	1	12.03	.001	.02
사회 구성원 인식 (사회환경 적응) ^{prior}	103698.98	1	3.04	.082	.00
낙인·반낙인 단서	1501742.12	1	43.97	< .001	.05
자막	3809.73	1	.11	.738	.00
낙인·반낙인 단서 x 자막	67782.94	1	1.99	.159	.00

Note. 순위 공분산분석을 위해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사전·사후 측정값의 잔차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등분산 검정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나,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사전)을 공변인으로 투입한 공분산분석 결과에서도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아래의 <Figure 2>는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의 주효과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에 노출되기 전 주요 변인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 특성에 관한 인식보다 사회환경 적응에 관한 인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환경 역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이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1이 지지되었고, 연구문제 1에 관하여 자막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조건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Results of primary cultivation effects analysis

Note. 실험 집단 간의 평균값과 p값은 공분산분석(MANCOVA, ANCOVA) 모형의 주효과 분석 결과를 기입하였다.

3)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이 비 장애인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2는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이후 변화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이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문제 3은 인식과 신념 간의 관계가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분석을 위해 실험 집단 대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모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 자극 노출 이후 측정된 온정적 차별주의와 적대적 차별주의를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 결과(<Table 6> 참고),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은 온정적 차별주의에 부적 영향력

을 발휘하고($\beta = -.14, p < .001$),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beta = .13, p < .01$)과 사회환경 적응($\beta = .30, p < .001$)은 온정적 차별주의에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적대적 차별주의의 경우,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beta = .10, p < .001$)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인 사회환경 적응($\beta = .25, p < .0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각 모형의 VIF는 1.14~2.48로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인 투입 이후 모형의 설명력은 온정적 차별주의 54.3%, 적대적 차별주의 60.6%로 각각 증가하였다.

Table 6. Effects of Perception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on the Beliefs of Non-Disabled Peop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종속 변인: 신념-온정적 차별주의 ^{post}									
	B	SE	t	p	VIF	B	SE	t	p	VIF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02	.06	.33	.741	1.60	-.03	.05	-.53	.598	1.61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06	.05	1.03	.303	1.72	-.03	.05	-.71	.480	1.82
신념(온정적 차별주의) ^{prior}	.68	.03	20.76	< .001	1.25	.58	.03	19.23	< .001	1.36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rior}	.08	.04	2.12	.035	1.35	-.06	.04	-1.31	.191	2.48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13	.03	-5.28	< .001	1.17
사회 구성원 인식(개인 특성) ^{post}						.16	.05	3.31	.001	2.76
사회 구성원 인식(사회환경 적응) ^{post}						.30	.03	10.11	< .001	1.56
F	147.19***					139.02***				
adj. R ²	.42					.54				
Durbin-watson						2.10				
	종속 변인: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ost}									
	B	SE	t	p	VIF	B	SE	t	p	VIF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07	.04	1.74	.082	1.60	.05	.04	1.27	.206	1.60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20	.04	5.12	< .001	1.72	.15	.04	4.16	< .001	1.75
신념(온정적 차별주의) ^{prior}	-.03	.02	-1.18	.238	1.25	-.08	.02	-3.25	.001	1.34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rior}	.67	.03	25.48	< .001	1.35	.59	.03	22.06	< .001	1.55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08	.02	4.40	< .001	1.14
사회 구성원 인식(사회환경 적응) ^{post}						.21	.02	9.82	< .001	1.31
F	257.66***					210.04***				
adj. R ²	.56					.61				
Durbin-watson						2.01				

Note. 적대적 차별주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은 변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p < .001$.

다음으로, 장애인을 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이 비장애인의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에 의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낙인·반낙인 단서 조건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7〉 참고). 적대적 차별주의의 경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인 사회환경 적응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2번 모형에서 두 변인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낙인·반낙인 단서 조건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4번 모형에서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고($\beta = -.31, p < .001$), 낙인·반낙인 단서 조건과의 상호작용항($\beta = .42, p < .001$)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해당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8〉 참고),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이 적대적 차별주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beta = .26, p < .001$),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온정적 차별주의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주요 변인과 낙인·반낙인 단서 조건 간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tigma C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Beliefs of Non-Disabled Peopl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종속 변인: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ost}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t	B	t	B	t	B	t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07	1.74	.05	1.27	.05	1.24	.03	.85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20	5.12***	.15	4.16***	.16	4.27***	.14	3.97***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rior}	-.03	-1.18	-.08	-3.25**	-.07	-3.09**	-.07	-2.87**
신념(온정적 차별주의) ^{prior}	.67	25.48***	.59	22.06***	.58	21.72***	.57	21.42***
사회 구성원 인식(사회환경 적응) ^{post}			.21	9.82***	.21	9.56***	.28	4.58***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post}			.08	4.40***	.10	4.41***	-.25	-3.98***
낙인·반낙인 단서					.07	1.23	-.49	-2.65**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x 낙인·반낙인 단서							.25	5.96***
사회환경 적응 x 낙인·반낙인 단서							-.06	-1.50
F	125.80***		210.04***		180.37***		150.58***	
adj. R ²	.558		.606		.607		.623	
Durbin-watson					2.02			

Note.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은 적대적 차별주의와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한 모형 3의 경우 F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p < .01$, *** $p < .001$.

Table 8. Differential Effects of Perceptions of the Mobility Environ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n Hostile Discrimination (Subgroup Analysis)

	종속 변인: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ost}									
	반낙인 단서 노출 집단					낙인 단서 노출 집단				
	B	SE	t	p	VIF	B	SE	t	p	VIF
장애인 접촉 경험(긍정)	.11	.05	2.20	.029	1.47	-.06	.06	-1.02	.309	1.89
장애인 접촉 경험(부정)	.15	.05	3.18	.002	1.66	.15	.06	2.52	.012	2.00
신념(온정적 차별주의) ^{prior}	-.09	.03	-2.86	.004	1.38	-.03	.03	-.88	.382	1.35
신념(적대적 차별주의) ^{prior}	.57	.04	15.50	< .001	1.61	.55	.04	14.62	< .001	1.61
사회 구성원 인식(사회환경 적응) ^{post}	.22	.03	7.24	< .001	1.41	.16	.03	5.72	< .001	1.22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00	.03	.16	.877	1.12	.27	.04	7.71	< .001	1.31
F	132.28***					128.96***				
adj. R ²	.61					.64				
Durbin-watson	2.07					1.95				

Note.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은 적대적 차별주의와의 변인 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p < .001.

연구 문제 3과 연구 문제 4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이후 변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은 적대적 차별주의와 온정적 차별주의에 각각 정적 영2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 이동환경에 관한 인식은 적대적 차별주의에 정적 영2향력을 발휘하며 온정적 차별주의에는 부적 영2향력을 발휘하였다.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이 적대적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2향에 관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구체적으로 낙인 단서 노출 집단은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결론

1) 주요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배양 효과, 특히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이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 즉 주변 환경이나 실제 세계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으로 구분하여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배양 효과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배양 이론 적용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이 사회 전반을 향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1차 배양 효과와 재현 대상을 향한 신념에 주목하는 2차 배양 효과를 구별하였고, 주류화와 공명 논의를 토대로 2차 배양 효과 발생 과정에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 따라 변인 간 관계도 달라질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전국 거주 성인 1,018명 대상 온라인 실험으로 연구 문제와 가설을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보다 사회 속의 장애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과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낙인·반낙인 단서가 드러나는 휠체어 사용 유튜브의 동영상 실험 자극으로 활용하였고,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자주 등장하는 위험 유형의 낙인 단서와 사회적 수용 유형의 반낙인 단서를 각각 적용하였다. 연구가설 분석 결과, 낙인 단서인 신체적 곤경이나 위험을 재현하는 장면에 노출된 실험 참여자들은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실험 참여자들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장애인의 이동환경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른 사회 구성원과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장면으로 구성된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실험 참여자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낮아지고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 단서의 부정적 효과(Diefenbach & West, 2007)와 반낙인 단서의 긍정적 효과(Reinhardt et al., 2014)를 분석했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 미디어 재현에 의한 배양 효과 논의(Gerbner, 1969; Shrum et al., 2005; Potter, 2014)를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으로 확장한다.

해당 결과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1차 배양 효과, 즉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이 사회 전반을 향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과정으로서의 낙인화(Smith, 2007)'를 보여준다. 과정으로서의 낙인화는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 표시를 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해당 표시가 나타난 개인을 평가 절하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Smith, 2007). 이 연구에서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반영된 낙인 단서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의 장애인을 향한 평가 절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표상이 사회 전반을 향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부각한다면 실제 세계의 장애인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과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으로 구별하였는데, 낙인 단서는 각각의 인식 모두에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반면,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개인 특성, 사회환경)을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장애인의 이동환경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결과 가운데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의 주효과 분석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낙인 단서 노출 집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과 장애인의 이동환경 모두 반낙인 단서 노출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 요인에 관한 집단 간 차이는 다른 두 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자극과 측정 문항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데, 먼저 이 연구에서 개인 특성 관련 요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 등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반면, 이 연구의 실험 자극은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된 사람, 다시 말해 하반신의 운동신경이나 감각 측면에서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등장한다. 따라서 개인 특성 요인은 실험 자극에서 재현된 표상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한 기능들, 예를 들면 지능 발달, 개인적 독립성, 사회적 책임감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낙인·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 간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덜 뚜렷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결과는 과정으로서의 낙인화(Smith, 2007)와 1차 배양 효과((Smith, 2007)를 재확인시켜준다. 즉,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서 형성한 표상이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과 자막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떤 경로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막의 효과를 논의했던 선행연구(김옥태·홍경수, 2012; 이민영, 2020)와 대비되는데,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이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표상을 형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Elliott & Byrd, 1982, 1984). 이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반영된 낙인 혹은 반낙인 단서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하는 개인의 표상을 만들어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출연자의 발언 내용을 문자 형태로 작성한 자막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이용자의 주의 집중을 지원하리라 예상될 뿐 낙인·반낙인 단서에 반영된 표상 자체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표상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과 자막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용자의 주의 집중을 끌기 위한 언어적 정보인 자막만으로는 낙인·반낙인 단서 자체에 반영된 표상의 영향력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낙인·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이후 측정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은 장애인을 향한 비

장애인의 신념에 차별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을 향한 비장애인의 신념은 적대적 차별주의와 온정적 차별주의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사회환경 적응(예: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향한 인식 가운데 개인 특성(예: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과 사회환경 적응,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온정적 차별주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를 종합해보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노출된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을 개인 특성이나 사회환경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와 온정적 차별주의 모두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온정적 차별주의가 증가하지만,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적대적 차별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결과는 배양 이론의 1차 효과가 2차 효과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던 선행연구(Potter, 1991), 즉 미디어를 통해 제공된 단서들이 미디어 콘텐츠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기 위한 정보로 작용하여 미디어 이용자의 신념을 변화시킨다는 선행연구(Hawkins & Pingree, 1982)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배양 이론의 1차 효과와 2차 효과가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도 적용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이 연구에서 장애인을 향한 신념은 '장애인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적대적 차별주의)'든가 '장애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산다(온정적 차별주의)'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1차 배양 효과 논의를 참고하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이러한 문장을 표상의 형태로 흡수할 수 있는 단서들이 제공되어야 그 효과를 논의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의 실험 자극은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이후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실험 참여자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고,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노출된 이후 변화한 인식은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 재현이 재현 대상을 향한 인식뿐 아니라 추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식과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각각의 문항들이 인식 혹은 신념으로 항상 고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생활시설 외부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장애인 주변의 편의시설은 적절하다,' '장애인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 등의 문장은 이 연구에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 그

리고 장애인을 향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사용되었다. 실험 자극에 재현된 모습을 고려하여 앞의 두 문장으로 인식을 측정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신념을 측정하였으나, 만약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서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앞의 두 문장을 추론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각 문장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인식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관찰한 결과이지만 신념은 관찰과 무관한 개인의 믿음을 가리킨다(Smith, 2001). 장애인을 향한 신념 역시 추론으로 형성된 개인의 믿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세계를 해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은 제공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새로운 판단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판단을 갱신하기도 한다(Shrum, 2017). 따라서 장애인을 향한 신념이라는 것도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관찰한 결과인 인식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 기여한다. 관련하여, 이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1차 배양 효과와 2차 배양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식 혹은 신념으로 이어지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셋째,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노출된 이후 변화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 간의 관계에서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과 적대적 차별주의 간의 관계가 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서 더 강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 역시 증가하는 2차 배양 효과가 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배양 이론은 주류화와 공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Gerbner et al., 1980). 여기서 주류화란 같은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경험과 무관하게 해당 메시지의 관점을 공유하게 되는 경향을 가리키고, 공명은 각자의 삶의 경험과 일치하는 미디어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미디어 메시지의 효과도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한다(Shrum & Bischak, 2001). 이 연구에서 확인한 조절 효과, 즉 낙인 단서 노출 집단에서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두 변인 모두 이동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배제를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적대적 차별주의는 장애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추어 평가하거나 멸시하고 이들을 기피함으로써 주류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려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감정기·임은애, 2005). 다른 한편으로, 적대적 차별주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제로섬(zerosum) 관계, 다시 말하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비장애인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개인의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이정은 외, 2020). 이 연구의 실

험 자극에 반영된 낙인 단서는 신체적 근경을 재현하는 위험 유형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이동환경의 장벽으로 인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표상을 반영하고 있다. 앞서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 이후 변화한 이동환경 인식과 적대적 차별주의 간의 정비례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 이후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장애인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를 포함한 적대적 차별주의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장애인의 능력 혹은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멸시하고 주류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이동환경의 인식과 적대적 차별주의 각각의 변인과 별개로,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가 증가한다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장애인을 향한 평가 절하와 주류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려는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낙인 단서는 장애인을 낮추어 평가하거나 이들을 기피하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주류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려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실험 참여자들 사이에서 장애인의 이동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적대적 차별주의도 증가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을 낮추어 평가하거나 주류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려는 경향과 이 연구의 낙인 단서가 서로 공명하여,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과 적대적 차별주의 간의 정비례 관계 역시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배양 이론 논의 가운데 공명과 주류화를 각각 뒷받침한다. 먼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향한 개인의 인식, 다시 말해 장애인을 낮추어 평가하거나 기피함으로써 주류사회로부터 배제 시키려는 경향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공명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장애와 관련된 개인의 삶의 경험, 예를 들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한 할당 표집을 실시하고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이나 실험 참여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인을 향한 신념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류화를 뒷받침한다. 선행연구(Shrum & Bischak, 2001)는 배양 이론을 논의하며 주류화와 공명에 주목하면서도, 이 두 개념은 이론적 논의에 머물기보다 구체적인 실험연구 등을 실시하여 주류화 혹은 공명이 나타나는 지점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배양 이론을 적용하며, 장애인의 이동환경 인식이 적대적 차별주의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서 더 강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체 표본 대상 분석 결과가 낙인 단서 노출 집단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이 적대적 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서는 두 변인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미하였으나 반낙인 단서 노출 조건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실험 집단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두 변인 간의 정적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성별·연

령·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할당표집으로 전국 거주 성인 1,018명 대상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본의 크기를 고려할 때, 전체 실험 집단 대상 조사 결과와 낙인 단서 노출 조건 간의 결과가 유사하였다는 점은 현재 우리 사회가 낙인 단서 노출 집단과 유사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함의와 한계

본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이론적으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배양 이론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미디어 재현이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를 향한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1차 배양 효과와 1차 배양 효과를 토대로 재현 대상을 향한 신념이 변화한다는 2차 배양 효과를 각각 확인하였으며, 2차 배양 효과 발생 과정에 주류화와 공명으로 인하여 미디어 재현 조건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배양 이론 논의에서 효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배양 이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배양 이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Shrum, 2017). 한국에서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은 담론 분석(김미라 등, 2022; 나대웅, 2023; 양정혜·노수진, 2012)이나 내용분석(최재현·이숙정, 2022) 등 미디어 재현 양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작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해당 논의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담긴 의미 구조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각각의 재현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배양 효과, 특히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획득한 표상이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 속의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을 향한 신념까지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주목하거나 배양 이론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하는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대규모 표본 대상 온라인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낙인·반낙인 단서 노출의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함에 따라, 미디어에서 낙인 단서 혹은 반낙인 단서를 실제로 재현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긍정적 효과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은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의 장애인을 반낙인 단서에 노출된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언론보도를 포함한 미디어는 장애를 재현할 때 낙인 단서를 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백선기, 2006; 신나안·정병언, 2021; Goethals et al., 2020), 방송사 혹은 언론사의 낙인 단서 재현 경향은 유튜브처럼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최재현·이숙정, 2022).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반영된 낙인 단서는 비장애인이 주변 환경 혹은 실제 세계의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이나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에서 장애를 재현할 때, 낙인 단서를 최소화하고 반낙인 단서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재현하는 것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참여를 제한받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고(Siminski, 2003), 시혜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장애를 ‘극복’한 영웅 혹은 어린이처럼 취급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감정기·임은애, 2005; 이정은 외, 2020). 다시 말하면,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재현하겠다는 명분 아래 온정적·시혜적 태도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논의했던 반낙인 단서를 참고할 수 있다. 반낙인 단서는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는 개인을 가족·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동등한 사회 주체이자 권리를 지닌 존재로 재현한다(최이정, 2009; Higgins, 1992; Scotch & Schriener, 1997). 따라서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 반낙인 단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이 연구의 주요 결과처럼 사회 속의 장애인을 향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벨기에의 16개 잡지 가운데 반낙인 단서는 전체 메시지 중 12.5%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Goethals et al., 2020), 미디어의 낙인 단서 재현을 한국 고유의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에서 낙인·반낙인 단서의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한 만큼, 반낙인 단서의 확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실천적인 성찰과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배양 이론을 적용한 낙인·반낙인 단서의 효과에 주목함에 따라 미디어 등장인물을 향한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parasocial interaction)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유명인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극성 장애 진단 사실을 공개하였을 때, 해당 인물을 향한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은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을 향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다(Wong et al., 2017).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친밀감은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감소로 이어지도 한다(김찬중, 2020; Schiappa et al., 2005; Wong et al., 2017). 따라서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미디어 등장인물, 예를 들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를 향한 의사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장애를 경험하는 등장인물을 향한 친밀감 역시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이나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유튜버 등 기능적 제한을 경험하는 미디어 등장인물과 이용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결과를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장면으로 재현된 낙인·반낙인 단서 중심으로 논의함에 따라 다른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 특히 문자 형태의 언어 정보가 발휘할 차별적 영향력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막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를 두고 자막의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막을 동영상 형태의 실험 자극과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인지, 문자 형태의 언어 정보가 다른 경로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인지, 비장애인의 관점으로 전달하는 해설적 자막을 제시하였을 때의 차이 등을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장애를 향한 미디어 재현의 낙인·반낙인 단서가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을 향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 속의 장애인 인식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정적 인식(개인 특성, 사회환경 적응)과 장애인 이동환경 인식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을 향한 신념 역시 적대적 차별주의와 온정적 차별주의로 구분하여 차별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미디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므로, 미디어의 낙인 단서 재현이 우리 사회의 차가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사회를 재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언론이나 미디어는 장애 혹은 장애인의 다채로운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을 조명하고 강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장애 혹은 장애인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인간승리’ 신화의 재료로 사용하기보다 미디어 재현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통합을 위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논의하는 시급성이 되어줄 것이다.

References

- Antonak, R. F. (1982).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3*(2), 22-29. <https://doi.org/10.1891/0047-2220.13.2.22>
- Baek, S. K. (2006). The reporting tendencies of the Korean press on 'minorities and the underprivileged' and the socio-cultural im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Conference*, 95-132. [백선기 (2006).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5-132.]
- Cha, Y., & Na, E. Y. (2012). The effects of stigma cues in TV drama contents dealing with the disabled: Focused on negative feelings and social distance to disabled people.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9*(1), 178-219. [차유리·나은영 (2012). TV 드라마 메시지의 낙인 효과. <언론정보연구>, 49권 1호, 178-219].
- Choi, E. J. (2009). An experimental study on effects of TV program about disabilities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pers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6*(2), 67-99. [최이정 (2009). 장애인 관련 TV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언론정보연구>, 46권 2호, 67-99.]
- Choi, J., & Lee, D. R. (2021). Media use habits, negative encounters with the police, and perceptions of the police: the mainstreaming hypothesis versus the resonance hypothesis. *Criminal Justice Studies, 34*(1), 48-67. <https://doi.org/10.1080/1478601X.2020.1736827>
- Choi, J., & Lee, S.-J. (2022) The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on YouTube - Differences by the type of producer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6*(6), 203-240. <https://doi.org/10.22876/kab.2022.36.6.006> [최재현·이숙정 (2022). 유튜브 영상 속 장애인 재현에 대한 내용분석: 생산자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6권 6호, 203-240.]
- Choi, Y., & Kim, D. (2017). Nonparametric method using linear statistics in analysis of covariance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30*(3), 427-439. [최윤정·김동재 (2017). 공분산분석에서 선형위치통계량을 이용한 비모수 검정법. <응용통계연구>, 30권 3호, 427-439.]
- Clark, J. M., & Paivio, A. (1991). Dual coding theory and edu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3), 149-210. <https://doi.org/10.1007/BF01320076>
- Diefenbach, D. L., & West, M. D. (2007). Television and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issues: Cultivation

- analysis and the third-person effec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2), 181-195.
<https://doi.org/10.1002/jcop.20142>
- Elliott, T. R., & Byrd, E. K. (1982). Media and disability. *Rehabilitation Literature*, 43(11-12), 348-355.
- Elliott, T. R., & Byrd, E. K. (1984). Attitude change toward disability through television: Portrayal with mal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7(3), 320-322.
- Gerbner, G. (1969). Toward “cultural indicators”: The analysis of mass mediated public message systems. *AV Communication Review*, 17(2), 137-148.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umber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Goethals, T., Mortelmans, D., Van den Bulck, H., Van den Heurck, W., & Van Hove, G. (2022). I am not your metaphor: Frames and counter-frames in the representation of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37(5), 746-764. <https://doi.org/10.1080/09687599.2020.1836478>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Prentice-Hall.
- Hawkins, R. P., & Pingree, S. (1982). Television’s influence on constructions of social reality. In D. Pearl, L. Bouthilet, & J. Lazar (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Vol. 2, pp. 224-247).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iggins, P. C. (1992). *Making disability: Exploring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human variation*. Charles C. Thomas.
- Hwang, D. M. & Kim, D. (2012). Nonparametric method using placement in an analysis of a covariance model.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9(5), 721-729.
- Johnson, M. K., Hashtroudi, S., & Lindsay, D. S. (1993).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114(1), 3. <https://doi.org/10.1037/0033-2909.114.1.3>
- Jones, E. E., Farina, A., Hastorf, A. H., Markus, H., Miller, D. T., & Scott, R. A.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W. H. Freeman and Company
- Kam, J.-K., & Im, E.-A. (2005). Development of ambivalent disablism scale-expansion of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6, 5-34. [김정기·임은애 (2005). 장애인차별 개념의 확장을 위한 양가적 장애인차별(Ambivalent Disablism) 척도개발. <사회복지연구>, 26호, 5-34.]
- KBS (2018, October 22). Breaking prejudice and directly communicating our story: ‘Disabled YouTubers’. KBS News. <https://youtu.be/BjOOH6iQepo> [KBS (2018, 10, 22). 편견 깨고 직접 소통하는 우리의

이야기 ‘장애인 유튜버’. <KBS뉴스>.]

- Kim, C. (2020) The effects of parasocial contact and vicarious contact news on attitude toward foreign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7(2), 50-92. <https://doi.org/10.22174/jcr.2020.57.2.50> [김찬중 (2020). 외국인 이주민 관련 긍정적 뉴스 보도가 부정적 태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권 2호, 50-92.]
- Kim, K. M., & Yoon, J. Y. (2013).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environmental factors. *Disability & Employment*, 23(1), 189-208. [김경미·윤재영 (2013). 장애인의 환경 척도 개발. <장애와 고용>, 23권 1호, 189-208.]
- Kim, M. R., Jang, Y. J., & Kim, S. (2022). “Strange and eccentric but worthy and beautiful”: Representation of a person with disability in <Extraordinary Attorney Woo>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6(6), 41-79. [김미라·장윤재·김소희 (2022).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장애 재현과 함의. <한국방송학보>, 36권 6호, 41-79.]
- Kim, O., & Hong, K. (2012). Effects of TV visual character on attention, emotion, and memory: A comparison of entertainment and inform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6(3), 5-27. [김옥태·홍경수 (2012).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막이 시청자의 주의, 정서, 그리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3호, 5-27.]
- Kim, S. Y. (2009). Effect of illustration and labeling to general children’s attitudes toward disable people.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4(1), 61-78. <http://dx.doi.org/10.26592/ksie.2009.4.1.61> [김수연 (2009). 삽화와 장애표찰이 일반아동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통합교육연구>, 4권 1호, 51-78.]
- Lee, D. H., & Kwon, O. (1999). Effects of visual and verbal advertising message on imagery processing and memory.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0(2), 159-172. [이두희·권오영 (1999). 광고의 그림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가 심상정보처리 효과와 기억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0권 2호, 159-172.]
- Lee, J., Choi, B., Cho, M, Lee, I., & Shin, H. (2020). Attitudinal barriers in interpersonal relations encountered by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151-192. <http://dx.doi.org/10.15709/hswr.2020.40.2.151> [이정은·최보라·조미형·이인선·신형익 (202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태도 장벽. <보건사회연구>, 40권 2호, 151-192.]

- Lee, M. Y. (2020). Effects of broadcasting captions and prior inform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of cultural minoritie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34(1), 192-222. <http://dx.doi.org/10.22876/kab.2020.34.1.006> [이민영 (2020). 방송 자막과 사전 정보가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34권 1호, 192-222.]
- Melhem, S., & Punyanunt-Carter, N. M. (2019). Using cultivation theory to underst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Arabs in the media.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9(2), 259-271. <https://doi.org/10.1080/13602004.2019.1625258>
- Moon, S. H. (2019, December 5). [Through their eyes] Why YouTuber Ham Jeong-gyun, a disabled person, picked up a camera. Seoul Shinmun.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5500029> [문성호 (2019, 12, 5). [그들의 시선] 장애인 유튜버 함정균씨가 카메라를 든 이유? <서울신문>.]
- Mustafaj, M., & Van den Bulck, J. (2021). Revisiting cultivation as a gravitational process: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the cultivation of fear and mistrus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5, 715-740.
- Na, D. (2023). Objectification of disability in the video media and human right issues: Focusing on the heroic representation of the disabled. *Disability & Social Welfare*, 14(2), 98-123. <http://dx.doi.org/10.36064/koddi.2023.14.2.004> [나대웅 (2023). 영상 미디어에서의 장애에 대한 상품화와 인권문제-영웅적 장애인 재현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연구>, 14권 2호, 98-123.]
- Olson, C. L. (1976). On choosing a test statistic in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83(4), 579-586.
- Park, S. Y. (2020, April 20). Ham Jeong-gyun, who travels across the country in a wheelchair: "I hope more disabled YouTubers emerge". PD Journal.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1> [박상연 (2020, 4, 20). 휠체어 타고 전국 누비는 함정균 씨 "장애인 유튜버 더 많아졌으면". <PD저널>.]
- Potter, W. J. (1991). The relationships between first- and second-order measures of cultiv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8(1), 92-113. <https://doi.org/10.1111/j.1468-2958.1991.tb00530.x>
- Potter, W. J. (2014). A critical analysis of cultivation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64(6), 1015-1036. <https://doi.org/10.1111/jcom.12128>
- Pruett, S. R., Lee, E. J., Chan, F., Wang, M. H., & Lane, F. J. (2008). Dimensionality of the contact with disabled persons scale: Results from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1(4), 210-220.

- Reinhardt, J. D., Pennycott, A., & Fellinghauer, B. A. (2014). Impact of a film portrayal of a police officer with spinal cord injury on attitudes towards disability: A media effects experimen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6(4), 289-294. <https://doi.org/10.3109/09638288.2013.788219>
- Schiappa, E., Gregg, P. B., & Hewes, D. E. (2005). The 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Communication Monographs*, 72(1), 92-115.
- Scotch, R. K., & Schriener, K. (1997). Disability as human variation: Implications for polic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9(1), 148-159. <https://doi.org/10.1177/0002716297549001011>
- Shin, E.-K., & Lee, H.-N. (2011) Valiation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ADP and ATDP-O)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1), 267-289. [신은경·이한나 (2011).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SADP and ATDP-O)의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3권 1호, 267-289.]
- Shin, N., & Jung, B. E. (2021). Othe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translation of the texts for film posters and synopse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 22(5). 69-97. <http://dx.doi.org/10.15749/jts.2021.22.5.003> [신나안·정병언 (2021). 영화홍보텍스트 번역에서 장애인의 타자화. <번역학연구>, 22권 5호, 69-97.]
- Shrum, L. J. (2017). Cultivation theory: Effects and underlying processe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1-12. <https://doi.org/10.1002/9781118783764.wbieme0040>
- Shrum, J., & Bischak, D. (2001). Mainstreaming, resonance, and impersonal impact. Testing moderators of the cultivation effect for estimates of crime risk.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7(2), 187-215. <https://doi.org/10.1111/j.1468-2958.2010.01392.x>
- Shrum, L. J., Lee, J., Burroughs, J. E., & Rindfleisch, A. (2011). An online process model of second-order cultivation effects: How television cultivates materialism and its consequences for life satisf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7(1), 34-57. <https://doi.org/10.1111/j.1468-2958.2010.01392.x>
- Siminski, P. (2003). Patterns of disability and norms of participation through the life course: Empirical support for a social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 Society*, 18(6), 707-718. <https://doi.org/10.1080/0968759032000119479>
- Smith, A. D. (2001). Perception and belief.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2(2), 283-309. <https://doi.org/10.1111/j.1933-1592.2001.tb00057.x>

- Smith, R. (2007). Media depictions of health topics: Challenge and stigma forma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2*(3), 233-249. <https://doi.org/10.1080/10810730701266273>
- Statistics Korea (2022).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by city, district, gender, and age (5-year age group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5&conn_path=12 [통계청 (2022).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United Nations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convention-rights-persons-disabilities>
- Vaske, J. J., Beaman, J., & Sponarski, C. C. (2017). Rethinking internal consistency in Cronbach's alpha. *Leisure Sciences, 39*(2), 163-173.
- Wong, N. C., Lookadoo, K. L., & Nisbett, G. S. (2017). "I'm Demi and I have bipolar disorder": Effect of parasocial contact on reducing stigma toward people with bipolar disorder. *Communication Studies, 68*(3), 314-333.
- Yang, J. H., & Noh, S. J. (2012) Representation of the disabled people in human documentary case study of KBS In Gan Kuk Jang.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6*(3), 371-415. [양정혜·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권 3호, 371-415.]
- Yuker, H. E., & Hurley, M. K. (1987). Contact with and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measurement of intergroup contact. *Rehabilitation Psychology, 32*(3), 145.
- Zhang, L., & Haller, B. (2013). Consuming image: How mass media impact the ident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ommunication Quarterly, 61*(3), 319-334. <https://doi.org/10.1080/01463373.2013.776988>

최초 투고일 2024년 08월 0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1월 26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1월 28일